

# 한국인, 하루 밥 한공기도 안먹는다

### 연간 쌀 소비량 56.4kg·하루 154g 수준...1984년 이래 39년째 감소 떡·주정·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등 제조업 부문 쌀 소비량은 증가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소비하는 쌀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 1인 당 쌀 소비량은 39년 연속 내리막을 타며,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4g 수준으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즉석밥이 210g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에 밥 한 공기도 먹지 않는 셈이다.

다만 떡과 주정,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등 쌀을 이용한 제조업 부문에서의 쌀 소비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전년(56.7kg) 대비 0.3kg(0.6%) 감소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3년 이래 120~130kg 선에서 오르고 내렸지만, 지난 1984년(130.1kg) 이후 39년째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1990년 처음으로 110kg대에 접어들었고, 1998년에는 99.2kg을 기록하며 두자릿수로 내려앉았다.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매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56.4kg) 역시 전년보다 감소하며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평균 154.6g으로 전년(155.5g)에 견줘 0.9g(0.6%) 감소했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지난 1970년 373.7g으로 가장 높았고, 증감을 반복하다가 1990년대 들어서 200g대에 진입했다. 이후에도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154.6g)에는 50여년 전 소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비되는 쌀이 적어지다보니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감소폭은 줄어들었다.

지난 2019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9.2kg으로, 전년(61kg)에 견줘 3.0% 감소했으며 2020년(-2.5%), 2021년(-1.4%), 2022년(-0.4%) 등

감소세가 둔화 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에서 쌀로 밥을 해먹는 양은 줄어들고 있지만, 쌀을 가공해 소비하는 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은 81만7122 t으로 전년(69만1422 t)에 견줘 12만 5700 t(18.2%) 증가했다.

사업체 부문 연간 쌀 소비량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지난 2020~2022년 연간 60만 t대에 머물렀었는데, 엔데믹을 맞으면서 지난 10여년간 쌀 소비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8년(75만 5664 t) 수치를 뛰어넘었다.

업종별로 보면 떡류 제조업이 21만4041 t(26.2%)로 쌀 소비량이 가장 많았고, 주정 제조업(19만 7102 t·24.1%),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13만 126 t·15.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8만 284 t·9.8%) 순으로 많았다.

특히 주정 제조업 부문에서 쌀 소비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주정 제조업의 쌀 소비량은 19만7102 t으로 전년(12만1774 t)보다 61.9% 증가했다.

이번 조사 통계는 농가 500가구, 비농가 900가구 등 총 1400가구와 식료품·음료제조업에 종사하는 2836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 '농사만사'

### 하얀 딸기 맛 보셨나요?

농작물 색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세상...높은 가격은 필수

눈꽃 딸기, 설화 딸기, 만년설 딸기, 신데렐라 딸기. 한 개에 천 원가량 하는 귀한 딸기의 이름이다. 며칠 전 마트에 들렀다가 요즘 잘나간다는 하얀 딸기를 만났다. 출시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영집'해 보니 과연 특이하고 오묘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빨간색이라는 관념을 과감히 벗어던진 하얀 딸기는 마치 딸기에 흰 눈이 내려앉은 듯(눈꽃) 열은 분홍빛이 난다. 강한 새콤함과 열은 파인애플 향이 특징이다. 이색적인 빛깔과 모양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물용으로 찾는다고 한다.

'신데렐라'라는 상품명으로 소비자를 만나고 있는 딸기 역시 하얀색이다. 일반 딸기와 달리 겉과 속이 흰색을 띠고 있으며, 당도는 일반 딸기보다 10~20%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하얀 딸기는 보기에 좋고 몸에도 좋다는 컬러푸드(color food)의 원칙에는 조금 벗어나지만, 역발상과 육종의 신묘함으로 이뤄낸 최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컬러푸드는 조화로운 식생활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을 말한다. 예를 들면 노화를 예방하는 검은색 식품(검은콩, 검은깨, 검은쌀, 메밀 등), 면역력과 항암 효과를 높이는 주황색 식품(당근, 호박, 고구마, 감 등), 혈관과 위장을 깨끗하게 하는 초록색 식품(녹차, 부추, 브로콜리, 솔잎 등),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하얀색 식품(마늘, 양파, 콩, 흰 채소), 심장병 예방과 독소를 제거하는 보라색 식품(포도, 자두, 블루베리, 가지 등), 피부가 좋아지는 노란색 식품(오렌지, 옥수수, 자몽 등), 예뻐지는 빨간색 식품(토마토, 사과, 석

류, 고추 등) 등이 있다. 컬러푸드 예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색깔로 이목을 끄는 대표적인 원예작물은 파프리카다. 주부나 농부 아니면 대개 피망과 파프리카를 구별하지 못하는데, 나 역시 초록색은 피망이고 빨강거나 노란색이면 파프리카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농산물 표준규격에서도 피망·파프리카로 한데 표시하듯 피망과 파프리카는 같은 종류의 고추(단고추)로 불리는 이름(명칭)에 따른 차이기 때문이다. 모양은 똑같지만, 색으로 구분하는 피망과 파프리카는 한국어로 풀이하면 고추이고 피망은 프랑스어, 파프리카는 헝가리어이다.

색소의 차이로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하얀색 등의 다양한 색을 지니고 있는데 빨간색은 암 예방에 좋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식이 섬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색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다 생체리듬을 유지해 주며, 주황색은 피부를 좋게 해주고 아토피 같은 질환을 예방한다. 초록색 역시 칼로리가 낮고 유기질이 풍성해 빈혈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

육종 기술이 발전하면서 원예작물 본연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됐다. 빨간색이었던 딸기가 하얀색이 되고, 사과도 황금색이 나왔다. 황금색 수박과 노란색 토마토, 보라색 고추 등이 나온 지 이미 오래다. 소비자들은 농작물의 색깔 변화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재배 농가의 입장에서 더 나은 수익을 위한 도전적인 만큼 좋은 결실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농협 광주·전남본부, 설 앞두고 식품안전 특별 관리

### 2월 8일까지 하나로마트 점검

농협 광주·전남본부가 설 앞두고 식품안전 특별점검에 나선다.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오는 2월 8일까지 식품안전 특별 관리기간을 운영하고 광주점 사국과 함께 지역 판매사업장을 찾아 특별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설 명절 전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주요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성수품 수급관리 현황도 함께 점검·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특별 점검기간 제수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유통기한 경과여부 ▲식품보존 및 보관방법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과대광고표시 등 5개 항목을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호 본부장은 "농협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한 모든 유통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식품안전 관리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도 오는 31일까지 '24년 설 명절 대비 식품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했다.

또 전남본부는 특별관리기간 동안 '식품안전 특별상황실'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식품안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별상황실은 지역 400여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 공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



이현호(가운데) 농협 광주본부장이 지역의 한 하나로마트를 찾아 농·축산물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차·허위표시 ▲유통기한 관리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박종택 본부장은 "농협은 특별점검뿐 아니라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통해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

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 설 명절에도 고객이 농협의 농축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식품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농식품부, 한우 최대 반값 '소프라이즈' 진행

### 설 앞두고 29개 온오프라인 매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함께 한우를 최대 50% 할인해 판매하는 '소프라이즈' 행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행사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온라인 한우장터 등 29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1885개 매장 및 소핑몰 등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판매 가격은 1등급 등심은 100g 기준 8180원 이하, 1등급 양지는 462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3020원 이하 등이다.

우선 29일 온라인 한우장터를 시작으로 주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오는 31일부터 진행되며, 농축협 하나로마트는 다음달 2일부터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한우 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물가안정과 함께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연중 한우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 한국토지부동산(주)

## 전원주택 신축

##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